

호주 ‘태즈메니아’

글·사진/허용선(건강 칼럼니스트)

호주 대륙의 최남단인 베스해협을 끼고 있는 태즈메니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스런 섬이다. 섬이라고는 하나 전체 크기가 우리나라의 3.5배나 되는 큰 면적을 갖고있다.

태즈메니아는 장수국가인 호주에서도 유난히 오래사는 노인이 많은 곳이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를 넘은 노인이 22명이 되어 세계적인 장수마을 기준에 해당된다. 학자들은 태즈메니아의 때문지 않은 자연과 합리적인 식생활, 큰 욕심없이 소박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습관이 장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유네스코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동시에 지정한 태즈메니아는 울창한 산림과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오지가 많아 조용하게 살려는 사람에게 매력적인 곳이다. 대자연과 원시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모두 150여개의 국립공원과 주립공원, 산림보호지구 등이 있다. 어디에서든 깨끗한 공기와 물이 있고 등산, 낚시, 골프, 래프팅, 하이킹, 록클라이밍, 수영, 카누 같은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다.

태즈메니아 주정부에서도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혜택을 부여한다. 이곳에선 중요한 의료시스템을 메디케어(Medicare)라고 부르는데 병원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과 안전의학, 직업병 센터, 국민보건, 정기검진 등을 담당한다. 노년층을 위한 질병예방도 정부와 학교, 일반 의료시설과 제약산업

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은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회활동이다.

오늘날 태즈메니아는 호주에서 으뜸가는 목재 생산지일 뿐 아니라 곡물·낙농제품·육류·설탕·과일의 생산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사과와 태즈메니아의 특산품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사과에는 몸에 좋은 당분과 유기산과 펙틴이 다량으로 들어있는데 당분은 대부분 과당과 포도당으로 되어있어 흡수가 잘 된다. 펙틴은 채소의 섬유질처럼 장의 운동을 자극하여 변비를 막아주고 장내의 유독성물질의 흡착을 막아준다. 일본 도야마 의과대학의 다자와 겐지 교수는 사과의 펙틴이 대장암을 막아준다고 학계에 보고한 적이 있다. 하루에 사



◀ 야생 캥거루에게 먹이주는 태즈메니아 여성.

▶ 태즈메니아시 향토음식. 주민들이 과식하지 않고 과일과 채소를 즐기는 것도 장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과 한 개만 먹으면 병원이란 걸 모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와 몸엔 좋은 과일인데 태즈메니아 사람들이 장수하는 데에는 품질좋은 사과도 도움을 주고 있을 것이다.

본토 대륙보다도 풍광이 아름답고 산이 많아 가을 경치가 빼어난 태즈메니아는 바다로 둘러싸인 관계로 해산물이 풍성하다. 가재, 왕새우, 연어, 왕게, 다랑어, 전복 등이 많이 잡히는데 갓 잡은 바닷고기로 만든 생선회는 현지 주민들이 즐겨 먹는 요리인 반면 이곳을 찾는 동양인에게도 큰 인기이다. 생선회는 물론 질 좋은 육류도 많이 생산되므로 이곳 주민들은 스테이크와 돼지갈비 그리고 양고기를 즐겨 먹는다.

태즈메니아 섬은 1642년 네덜란드 사람인 태즈먼이 처음 발견했다. 그 후 1803년부터 영국의 땅이 된 후 식민지로 이용되었다. 영국정부는 아메리카 식민지를 상실한 후 본국 감옥에 죄수들이 넘치자 이들을 호주로 보냈다. 간단한 횡령사건이나 절도범인 경우에는 시드니로 보냈지만 살인범 등 죄질이 나쁜 사람에게는 태즈메니아로 이송했다. 교도소의 간수들은 이들을 난폭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당시에 태즈메니아로 간다고 하면 죄수들을 사색이 되었다고 한다. 과거에는 유형지였으나 현재 이곳 시민들은 호주의 어느 도시보다도 범죄율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즈메니아 섬에는 호주에서 시드니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인 호바트가 있다. 해발 1,270m의 웨링턴산을 배경으로 잔잔하면서도 드넓은 더웬트강 입구에 위치한 아름다운 장수촌이다. 호바트시의 이름은 당시의 식민지 장관이었던 호바트 경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웨링턴산 정상에 올라가면 호바트시내가 한눈에 잘 들어온다. 주택의 지붕이 유난히 빨간색이 많은데 이것은 주민들이 빨간색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호바트 시민들의 활기찬 삶의 현장을 돌아보려면 토요일 오전에 열리는 살라만카시장에 가야 한다. 이곳에선 공예품과 다양한 장신구, 꽃과 채소 등이 노상에서 거래된다. 벼룩시장에는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내다 팔거나 교환하려는 알뜰주부들이 많이 모인다. 간혹 마술사나 광대, 거리의 악사 등이 이따금씩 나타나 재주를 부린 후 모자에 기부금을 받곤 한다. 호바트시를 벗어나면 배터리 포인트라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식민지 시대의 마을이 나온다. 우아하게 지어진 목조건물은 창문들이 특히 아름답다. 주위에는 고풍스러운 상점, 식당으로 개조된 가옥, 박물관 등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배터리 포인트는 1804년 호바트에 처음 상륙한 사람들의 활동무대였던 곳이다. 당시에는 고래잡이 항구로 번성했지만 지금은 40여 채의 유서깊은 가옥만이 고즈넉하게 남아있는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곳이다.



▲ 태즈메니아에서 수확되는 사과. 당도가 높은 이 지역의 건강식품이다.



◀ 깨끗한 자연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테즈메니아의 노인들.

호바트에서 북동쪽으로 24km 떨어진 곳에는 리치먼드시가 있다. 18세기 초반 영국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들을 잘 감상할 수 있는 유서깊은 곳이다. 리치먼드는 화랑, 꿀동품점 그리고 소규모 가내공장이 있는 아담한 마을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가 시내에 있다. 1823년 세워진 석조다리로 언덕에는 성 요한성당이 자리하고 있어 평화스런 모습을 자아낸다.

론세스톤은 테즈메니아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로 타마르강 상류에 자리하고 있다. 시내

에서 걸어서 약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는 캐릭터계곡이 있다. 이른 아침 안개에 싸인 계곡의 모습이 신비스럽게 느껴진다. 리프트를 타고 호수 위를 지나 잠시 걸으면 흔들다리가 나타나고 이어 먼 길을 갈 수 있는 트레킹코스가 나타난다. 론세스톤에서 서쪽으로 3시간 거리에는 세계문화유산 지역으로 지정된 크래들산과 세인트 클레어 국립공원이 있다. 이곳의 자연환경은 때문지 않은 순수함을 느끼게 한다.

테즈메니아의 원주민인 애버리진이 동굴 속에 그린 예술적인 그림들이 문화적인 가치를 높게 한다. 약 3만 6000년 전부터 인간이 거주하면서 애버리진이 동굴 속 바위에 그린 희귀한 그림이 발견되고 여러 생활용품도 같이 출토됨으로써 고대 인류의 생활상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테즈메니아에는 영국 식민지 시대에 건축된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가옥, 다리, 교회 등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테즈메니아 사람들의 생활태도는 자유분방하다. 거리를 걸어가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핑크 코트에 빨간색 매니큐어를 칠한 숙녀도 사과를 먹어가며 윈도우 쇼핑을 즐긴다. 이처럼 테즈메니아 사람들은 남의 왕이라고 해서 굳이 점잖음 빼거나 체면을 차리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려 들지도 않는다. 초목의 푸르름이 가득한 지상 낙원과도 같은 아름다운 섬 테즈메니아에서 이들은 진정한 자연을 즐기면서 남들 의식하지 않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Z



테즈메니아의 주도(州都)인 호바트시의 도시, 유서깊은 항구도시이다.